기획 연재

孝와 烈에 관한 瞑想 ⑥②

權 五 焄
本紙편집인

162. 언장마복彦章馬뮤

중국 오대五代 후량後梁 때 일이다. 왕언장王彦章이 초토사招討使가 되었는데 후당後唐 군사가 연주兗州를 공격하니 말제末帝가 동로東路를 지키게 하였다. 이때 황제의 어가를 보호할 군사는 겨우 5백기騎가 있는데 거개가 신병이어서 쓸모가 없었다.

왕언장이 체방遞坊에 이르러서는 적은 군사로 싸워 패하여 중도中都로 물러나 지키다가 또 패하였다. 그 휘하 아병牙兵 백여 기로 사전을 벌이는데 당의 장수 하노기夏魯奇가 평소 그 목소리를 알고 있어 말하기를 ‘ 왕철창王鐵 이다 ’ 하고 긴 창으로 찌르니 왕언장이 중상을 입고 말이 엎어지는 바람에 사로잡혔다.

후당의 장종莊宗이 왕언장을 보고 ‘ 네가 싸움을 잘하는데 어째서 연주를 지키지 않고 중도를 지켰느냐? 중도는 성벽과 보루가 없는데 어찌 굳게 지킬 수가 있느냐? ’ 하니 왕언장이 대답하기를 ‘ 대사가 이미 기울어졌으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노릇이오 ’ 하였다. 장종이 측은히 여겨 약을 내려 그 창상을 싸매게 하고 그 날랜 용맹을 사랑하여 살려주고자 사람을 시켜 위로하고 깨우치게 하였다. 그러자 왕언장이 사양하며 ‘ 신이 폐하와 10여년을 혈전하다가 이제 군사는 패하고 힘은 다하였으니 죽지 아니하고 무엇을 기대하겠소. 또한 신이 양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 죽음이 아니고는 보답할 길이 없거늘 어찌 아침에 양나라를 섬기고 저녁에는 진晋나라를 섬기겠습니까 ’ 하였다. 장종이 또 이사원李嗣源을 보내 찾아가 깨우치게 하니 왕언장은 누워서 말하기를 ‘ 네가 막길렬邈佶烈이 아니냐? 내가 어찌 구차히 살고자 하겠느냐 ’ 하고 마침내 피살하니 나이 61세였다.

왕언장은 중국 오대五代 때 운주 州 수장壽張 사람으로 자는 자명子明 또는 현명賢明이고 말제末帝 때 선주자사 州刺使에 이르렀다. 늘 철창鐵 을 들고 다니며 용맹을 떨쳐 왕철창으로 불렸다. 후당군이 선주를 치고 그 처자를 인질로 삼았으나 개의치 않았고 싸우다 후당군에 사로잡혀 피살하였다. 하노기는 후당 청주靑州 사람으로 자는 방걸邦傑이며 후량에서 벼슬하다가 후당으로 가 무신武信을 진압하고 하양절도사河陽節度使에 이르렀다. 장종莊宗은 오대 후당의 시조 이존욱李存勖으로 이극용李克用의 아들이다. 이사원李嗣源은 오대 후당의 명종明宗으로 대북代北 응주應州의 호인胡人이고 본명이 막길렬邈佶烈인데 후당 태조太祖의 양자가 되어 사성명 이사원이 되었다. 장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여 궁인과 영관伶官의 수를 줄이고 내장고를 폐기하여 백성이 안식케 하였으나 무죄한 신하를 자주 죽이다가 병이 들었을 때 진왕秦王 종영從榮이 난을 일으키자 한을 품고 죽었다. 장종이 이러한 이사원을 보내 회유했는데도 왕언장이 그 오랑캐 본명 ‘ 막길렬 ’이라 불러 모욕했던 것이다.

제목 언장복마는 왕언장의 말이 엎더졌다는 뜻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당사대거원래공唐師大擧遠來攻 : 당나라 군사 멀리서 대거 공격해오니
사전최봉욕효충死戰 鋒欲效忠 : 죽기로 싸워 예봉을 꺾어 충성을 보이고자
병소역탄종취사兵少力 終就死 : 군사 적고 힘이 다해서 끝내 죽음을 맞았으니
고금신절숙능동古今臣節孰能同 : 고금의 신하 충절로 누가 이와 같은가
중과난당세고연衆寡難當勢固然 : 중과부적의 형세는 본디가 그러한데
황금신모병과연 今新募秉戈 : 하물며 신병까지 창검을 들었음에랴.
신상마복심유장身傷馬뮤心猶壯 : 몸이 다치고 말이 엎더져도 마음은 굳세니
의열고풍만고전義烈高風萬古傳 : 의열의 높은 풍모 만고에 전하네.

163. 배약효순裵約效順

오대 후당 때의 일이다. 소의절도사昭義節度使 이사소李嗣昭가 죽자 그 아들 이계도李繼韜가 택주澤州와 노주潞州를 들어 모반하여 후량後梁에 항복하였다. 택주의 태수太守 배약裵約이 그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울며 깨우치기를 ‘ 내가 돌아간 절도사를 섬기기 20여년에 재산을 나누어주심을 받아 군사를 먹였으니 양에 원수를 갚고자 했으나 불행히 일찍 돌아가셨다. 이번에는 군부君父가 돌아가시어 장사도 지내기 전에 군친君親을 위배케 되었으니 내가 여기에서 죽을 수는 있되 양에 귀부할 수는 없다 ’ 하니 무리가 모두 감격하여 울었다.

양나라에서 동장董璋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가 에워싸니 배약은 고을 사람들과 더불어 막아 지키면서 장종莊宗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이때 장종은 양군과 더불어 하상河上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미 황제의 대호大號를 세운 뒤로서 이계도가 모반하여 양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못 우울한 기색을 띠고 있던 중 배약이 홀로 배반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하자 기뻐하며 ‘ 내가 계복에게 무엇을 박하게 하였으며 약에게 무엇을 후하게 하였기에 약이 이처럼 역逆과 순順에 능한 것인가 ’ 하고 부존심符存審을 돌아보며 ‘ 내가 택주를 양에게 준 것이 아깝지 않으니 한 고을은 쉽게 얻을 수 있으나 약은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 약을 구출해 데려오라 ’ 하였다. 이에 부존심이 5천기騎를 거느리고 달려가 요주遼州에 이르렀을 때 양의 군사가 이미 택주를 깨트리고 배약은 피살한 바였다.

이사소는 오대 시대 태곡太谷 사람으로 본성명은 한진통韓進通인데 진왕晋王 이극용李克用의 양자가 되어 성명을 바꾸었고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후당의 장종莊宗이 거란契丹을 치다가 포위되자 3백 기병으로 포위망을 풀어 구원하였다. 소의군절도사昭義軍節度使에 올랐고 장문례張文禮를 공격하다가 전사하였다. 이계도는 이사소의 아들로서 안의군유후安義軍留後가 되었는데 후량과 내통하고 거란으로 달아나려다 장종에게서 죄를 사면받았으나 아우 이계원李繼遠과 함께 군성軍城을 변경시키려다 누설되어 주살되었다.

배약은 후당 때 노주潞州의 아장牙將이다가 장종 때 택주자사澤州刺史가 되었다. 이계도가 반역하여 택주를 공격하니 농성으로 사수하다가 성이 함락되어 죽었다. 동장은 오대시 후량에서 지휘사指揮使를 지내고 후당으로가 빈녕절도사邠寧節度使를 지내고 곽숭도郭崇韜를 도와 전촉前蜀을 평정한 공으로 동천절도사東川節度使에 올랐다. 맹지상孟知祥을 공격하다 패한 뒤 능주자사陵州刺史 왕휘王暉에게 피살했다. 부존심은 오대시 진주陳州 완구宛丘 사람으로 자는 덕상德祥이고 초명은 존存인데 진왕 이극용에게 귀의하여 이존심이라는 성명을 받았다. 후당에서 이광주李匡 를 토벌하고 요병遼兵을 패퇴시키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워 흔주자사 州刺史、선무군절도사宣武軍節度使에 이르렀다.

제목 배약효순은 배약이 순리를 실현해 보였다는 뜻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번신반란이망군藩臣叛亂已忘君 : 변방의 신하 반란하여 이미 임금을 잊었는데
독유배공순역분獨有裵公順逆分 : 홀로 배공이 순역을 구분하네
읍유주인명대의泣諭州人明大義 : 울며 고을 사람 깨우쳐 대의를 밝히니
명수죽백파형분名垂竹帛播馨芬 : 이름은 죽백에 드리우고 향기는 퍼져났네
구원불래위불해救援不來圍不解 : 원병은 오지 않아 포위는 풀리지 않고
고성독수경망신孤城獨守竟亡身 : 외로운 성 홀로 지키다 끝내 몸이 없어졌네
가련존심오천기可憐存審五千騎 : 안타깝도다, 부존심의 5천기는
재도요주불견인 到遼州不見人 : 가까스로 운주에 닿았으나 사람을 만나지 못하네.

164. 한통우해韓通遇害

오대의 후주後周에서 있은 일로 제목 한통우해는 한통이 해를 당했다는 뜻이다.

전전도점검殿前都點檢 조광윤趙匡胤이 진교陳橋에서 대오를 정비해 가지고 변경 京으로 들어오니 시위친군 부도지휘사侍衛親軍副都指揮使 한통韓通이 궁궐의 금중禁中에서 황급히 나와 집으로 돌아가서는 무리를 모아 지휘하여 방어코자 하였다. 그러자 군교軍校 왕언승王彦昇이 뒤쫓았다. 한통이 그 집에 달려 들어가 대문을 닫기에 못 미쳐서 왕승언에게 해를 입었고 처자도 모두 죽었다. 조광윤이 황제로 즉위하여 국호를 송宋이라 하고는 한통에게 중서령中書令을 추증하고 예로써 장사해 주었다.

조광윤은 탁군 郡 사람으로 후주에서 수선受禪하여 제위에 올라 송나라를 개국하여 태조太祖가 되고 엄격하고 선한 정사를 펴 일통一統의 기틀을 이루고 17년 동안 재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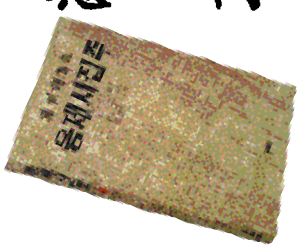
한통은 오대 주周의 태원太原 사람으로 자는 중달仲達이며 용력이 대단하였다. 처음에 한漢의 태조太祖를 좇아 군교軍校에서 거듭 옮겨 봉국지휘사奉國指揮使가 되고 태조가 즉위해서는 천웅군도교天雄軍都校가 되어 더욱 그 심복이 되었으며 변경 京으로 들어와서는 심히 유력해지고 우상도순검右廂

11면으로 계속

상세한註解의완역판
原文띄어쓰기新조판에인명 · 지명 · 사물 색인

응 제 시 집 주

應 制 詩 集 註



權 近 原作
權 擥 集註
權 光 旭 譯註

신국판 352면 • 값 15,000원

《陽村會報》에 95년부터 98년까지 4년에걸쳐 연재한 노작의 역주문을모아 다시 교열 • 수정하고 , 완전히 띄어쓰기를 하여 새롭게조판한 원문과 인명 • 지명 및 사물 색인을 추가하여 한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應制詩란 옛날중국 황제의명에 응하여 지은 시란 뜻이며 조선 개국초에 撰表 사건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여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陽村이 明에 사신으로 가太祖 朱元璋을 전대하여 이를해결하고 시문을주고 받음으로써 老實秀才라는 칭상까지 받았는데 이 시집에는양촌이 명 태조에게 지어올린 24수의시와 황제가 직접 지어 양촌에게 준 3수의 시 및 중국 문인들의 응제시와 序跋文 등이 실리고 거기에양촌의 손자 所閑堂 權擥의 방대한 분량의 해석과 集註가 첨가되어 한권의 책을이룬 것입니다.

해돋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전화 (02)734-3085 전송 (02)738-8935